



## 사순 제1주일(3월 9일)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루카 4,1-13)



### 그리스도의 유혹

작품은 예수님께서 천상의 색인 푸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전면에 있는 사탄은 프란치스칸 수도복을 입고 오른손에 묵주를 쥐고 왼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선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고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루카 4,4) 왼쪽 절벽 가장자리 위에 두 사람이 서 있다. 사탄은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자기를 경배한다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유혹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 만을 섬겨라.’” (루카 4,8) 오른쪽 나무 뒤에 있는 고딕 성당 위에 희미하게 두 사람이 서 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뛰어내려 보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하지 않겠냐고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에게 이르셨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루카 4,12)

작가 후안 데 플란데스 | 1500년경, 목판에 유채, 21x16cm, 국립미술관, 미국.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어 온갖 유혹과 악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 주님, 저희를 이끄시어 주님의 영광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작하셨다. 3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6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7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8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9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11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12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3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미사에 불참하거나 성경 말씀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하느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미신이나 다른 사상을 더 믿고 따른 적이 있습니까?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유혹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님이시기에 어떤 유혹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속한 참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는 예수님은 그 안에 인성과 함께 신성 또한 함께 온전하게 현존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매번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자주 하느님의 말씀을 찾고 선택하기보다 나의 욕심이나 쾌락과 안락함을 찾고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순시기는 이런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참회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느님 말씀으로 향하고 하느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유혹에 넘어

지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점점 더 배우고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순시기가 더욱 하느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 생명의 말씀 써보기 [ 루카 4장 4절, 8절, 12절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봉사의 생활 ▶ 3월 8-9일 자원 봉사 활동 분야의 희년 일정에 따라

### 공동체와 함께

- ① 모든 자원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하기
- ② 우리 지역 내 사회활동·자원봉사 단체를 알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 내 삶 속에서

- ① 교회 밖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화살기도 바치기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2절을 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